

공산주의의 단계로써의 사회주의/공산주의 용어의 기원

후텐



마르크스주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마르크스주의에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예견을 두 단계로 나누어 앞부분을 사회주의로, 뒷부분을 공산주의로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구분 자체는 마르크스의 <고타강령비판>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마르크스 자신이나 엥겔스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라는 용어만을 사용했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그 두 개념에 대응시킨 적은 없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부는 레닌을 이런 용어 사용의 시작으로 돌리고 심지어 '진정한 공산주의의 성취를 먼 미래로 미루기 위해(!) 레닌이 이런 용법을 도입했다는 주장조차 존재한다. 그러니 레닌 이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 대부분의 출처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레닌(을 인용했다고 주장하는 소련 관변 마르크스주의 문헌)일 가능성은 높으나 레닌을 이런 용어의 (적어도 의식적인) 창안자로 돌리는 것은 전혀 온당치 못한 일이다.

레닌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의 동의어로 쓴 곳 중 지금 확인 가능한 것은 <국가와 혁명>, <공산주의에서의 '좌익' 소아병>이다. Marxist Internet Archive에 올라온 영어로 번역된 레닌 전집을 검색해 보아도 짧은 팸플릿을 제외하면 이 외에 레닌의 저작에서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라는 뜻으로 사용한 주요 저작은 찾을 수 없었다. 몇 군데를 인용해보겠다.

<국가와 혁명>, 돌베게, 2015,

(p.155) 이러한 사회제도(일반적으로는 사회주의라고 불리며,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첫 단계라고 부른)

(p.158) 이와 같이 공산주의 사회의 첫 단계(보통 사회주의라고 불리는)에서 '부르주아적 권리'는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분적으로만, 이미 이룩한 경제적 변혁만큼만...

(p.163)...일반적으로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의 '첫' 단계 또는 낮은 단계라고 불렀다.

<공산주의에서의 '좌익' 소아병>, 돌베게, 1992, 42페이지

...러시아에서 우리는 (부르조아지 타도 후 3년째인 지금)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곧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로 이행하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레닌이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라는 의미로 쓸 경우 항상 두 용어를 같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분명히 레닌은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공산주의의 낮은, 혹은 첫째 단계'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는, 적어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쓰이지만 혼동을 막기 위해 꼭 그런 뜻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것을 새로운 용어나 용법을 도입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보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당연히 레닌이 그런 용법을 자주 접했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카우츠키, 또는 전쟁 이전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용법일까? 그러나 카우츠키가 <국가와 혁명>이 쓰인 1917년 이전에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라고 언급한 저작은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그 자신이나 독일 사민당에서 그런 용법을 사용했다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카우츠키가 1924년 저서 <The Labour Revolution>에서 고타강령비판에 기반한 공산주의의 두 단계에 대해 언급할 때 그는 첫 단계를 사회주의라고도 두 번째 단계를 공산주의라고도 부르지는 않는다. (특기하자면 그 저서에서 직접적으로 레닌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그런 구분을 레닌이 한 것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공산주의의 두번째 단계'와 '공산주의의 첫번째 단계'를 언급한 다음 '공산주의의 첫번째 단계' 대신 '사회주의의 첫번째 단계'를 언급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사실상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별 설명 없이 행해지므로 오타자나 단순 착오일 수도 있지만 전쟁 이전부터 독일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혹시 플레하노프나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용법은 아닐까?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구분을 한 플레하노프의 저작을 찾지는 못했다.

현재까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해서 전자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뿐 더러, 레닌도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그런 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

다. 레닌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용되는 용법일 뿐 마르크스가 사용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여겼다는 것은 분명하다. 레닌이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공산주의의 첫번째 단계'라는 뜻으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공산주의의 두번째 단계'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보통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또한 분명하나 레닌 이전 다른 사람이 그런 용법을 사용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이 일은 로자 룩셈부르크가 언급해 유명해진 '사회주의나 야만이나'는 경구와 약간 유사하다. 룩셈부르크 (감옥에서 문헌에 접근할 수 없어 기억에 의존해야 했던) 자신은 그것이 엥겔스로부터의 인용이라고 언급했으나 엥겔스의 저서에서는 그와 같은 표현을 찾을 수 없었으며, 결국 수십년이 지나서야 그것이 카우츠키로부터의 인용이라고 밝혀진 것이다. 또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용어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그들의 저작에서는 '유물론적 변증법'이란 용어만이 쓰일 뿐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용어는 디츠겐과 카우츠키가 1887년에 독립적으로, 그리고 플레하노프가 1891년에 또한 독립적으로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착각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